

현대車, 태풍 '미탁' 피해복구 성금 10억 기탁

기본 생필품 지원·수해 차량 서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전달 등 다양한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또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생수,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옷가지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가능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2대를 투입했다.

7톤 트럭을 개조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및 발전기 1대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 평균 1000kg 규모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대·기아차는 올해 연말까지 태풍 '미탁'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위해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2017년 포항지진, 2016년 태풍 '차바'를 비롯해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2007년 태풍 '나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3년 태풍 '매미', 2002년 태풍 '루사' 등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미래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중국집 사장님은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집 사장님은 피자를 시켜먹고, 피자집 사장님은 족발을 시켜먹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웃픈(웃기고 슬픈) 상부상조'의 모습이다. 퇴직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고, 국민연금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장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3조91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6969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300억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매년 수 천억원, 기금은 수 조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나.

여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8만6209곳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만 4728곳(26.4%)이었고,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총 56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이들 과밀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세로 교육시켜 내보내는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또다시 '치킨 게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지원정책 실패의 한 사례일 뿐이다. 소상공인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산다사형 창업'은 자영업 비중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태광그룹 일주재단, 국내학사 장학생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4일부터 31일까지 국내 4년제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국내학사 장학생사업'을 진행한다. 일주재단은 특정 학교나 전공에 대한 차별 없이 여러 분야의 다각적 평가를 통해 학사 장학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태광그룹 창업주이자 재단 설립자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철학에 따라 1991년 시작했으며, 총

914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국내학사 장학생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의 성적(4.5점 기준)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 후 연 15회(총 30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배려계층 장학금 필요성 측면을 강화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최대 6학기까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일주재단 국내학사모집 포스터. /태광그룹

장학생은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8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7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4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 37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49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 6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73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8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 38년생** 자선이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50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나 실리는 없다. 62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조심. 74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8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 39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1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발생. 63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75년생 돼지띠와의 계약이 잘 성사. 87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 40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52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 64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76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8년생 이사해도 재활용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
- 41년생** 자식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53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65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지 마라. 77년생 서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89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라.

- 42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소꿉동 한 방법. 66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78년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90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 4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55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동할 때. 67년생 후배의 조언으로 위기를 모면. 79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91년생 청소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
- 44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 5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68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80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92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 4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낭비. 6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81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93년생 황재수가 있으니 재물운도 있다.
- 46년생** 농진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8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다. 70년생 무지개를 쫓아가나 잡지 않는다. 82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94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 47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59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71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83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95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김상회의四季 같은 듯 다른 운명의 길

쌍둥이 아들을 둔 삼십대 초반의 젊은 애기 엄마가 방문했다. 아들이 다섯 살인데 쌍둥이 아들들의 미래가 궁금했다. 보통 쌍둥이라 하면 같은 연월일시를 타고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성격이며 사주가 비슷하기가 일반적이다.

아들들의 경우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낯은 같은데 태어난 시가 차이가 있어 연월일까지는 같으나 시(時)는 달랐다. 을미년 생으로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보니 큰 아이랑 작은 아이는 괴강일주로서 남의 밑에 있기보다는 리더격으로 살아가는 운이라 말해주었다.

그러나 큰 아이는 연애파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 평생 여자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 점을 조심해야 한다. 춘정산하격(春情山河格)이라 하여 여자 없이는 못사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래 동생은 여자문제는 형에 비한다면 깔끔하나 대인관계에 있어 선이 강하다. 운이 좋을 때는 별무탈하여 탈이 적으나 대운이 비운으로 흐를 때는 아군이 변하여 적군이 되는 형상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굳이 다룰 일이 있어도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도 형보다 동생이 더 기질이 강하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형은 일지의 진(辰)이 시지의 유(酉)를 만나 진유합을 이루니 풍류를 즐기는 격이 된다.

동생은 일지의 진(辰)이 시지의 술(戌)을 만나 충을 하게 된다. 필자의 설명을 들은 애기 엄마는 사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큰 애는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고 동생은 후딱 하면 싸움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이리 다른가 싶어 아이들의 사주를 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4	2	3			
3								2
	5		3		2		1	
	3			8				4
	6		7		5		8	
4								3
			5	6	7			
		2				8		

5	8			2			9	3
	9	2					7	8
		3	4		2	1		
			3			9		
1				8				9
	3						7	
		4					2	
2			5		3			1

수도쿠 정답								
9	6	8	7	5	1	2	3	4
1	2	7	4	9	5	8	6	3
5	4	8	6	2	9	1	7	3
6	8	5	1	2	7	9	3	4
5	7	2	9	8	6	4	1	3
2	1	9	3	7	5	6	8	4
2	4	6	1	5	9	8	7	3
8	9	1	5	2	7	3	6	4
7	5	6	4	8	1	2	9	3
1	9	8	5	7	6	2	4	3
5	2	4	1	6	8	7	3	9
7	6	1	9	2	5	8	3	4
6	7	5	8	9	2	1	3	4
2	9	6	1	5	8	3	7	4
9	8	2	7	5	1	2	6	3
2	1	5	8	6	9	7	4	3
5	6	7	9	2	4	1	8	3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04호